

돼지 콜레라, 오제스키병을 박멸하자



김봉환 교수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우리나라에서 돼지 콜레라가 문제되기 시작한지는 근 100년이 되었고, 오제스키병이 확인된지도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열번이나 지나도 돼지 콜레라의 발생은 변함없이 우리 양돈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 병을 한번 경험해본 양돈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겁을 낸다. 이 병의 악몽을 씻지못하여 양돈을 집어치운 분들도 많고 파산지경에 이르러 고통을 받은 분들도 많은 줄 안다. 세월이 약이라서 이력저력 지나다보면 콜레라의 무서움도 사라지고 오제스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지, 우리 민족의 특기인 인내심으로 이런 병들을 감수하고서도 오기로 양돈을 해오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생명산업으로서의 명맥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돼지 키워서 수지가 맞는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돼지를 늘려 돼지의 사육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돼지 싸이클(pig cycle)이 찾아오고, 이 때문에 어렵다 싶으면 내팽개쳐 돼지 질병이 곳곳에 발생하여 추려주니 수급조절에 기여(?)하는 폭이되어 재미보는 이들도 있었던게 사실이다.

외국에서 가져온 종돈으로, 도입된 곡물사료로 돼지를 키우는데 덴마크사람들은 연간 모든 두당 20마리의 규격돈을 출하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6마리 정도밖에 안되고, 생체 kg당 생산비는 덴마크가 875원인데 우리는 1,320원으로 월등히 많으니 97년 7월부터 돈육수입이 자유화된다면 과연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흔히들 대일돈육수출이 우리 양돈업이 지향해야할 과제중의 하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들 입을 모운다. 그러나 지난 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총 수입물량중 2.4%인 14,346톤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대만은 우리보다 무려 20배, 덴마크는 12배를 수출하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에 수출은 커녕 캐나다, 미국, 덴마크 등에서 물밑듯이 돼지고기가 물려와 우리의 양돈기반을 뒤흔들어 놓을게 불을 보듯이 흰하게 보임은 지나친 기우때문일까? 그때가서 우리 입맛에는 우리 돼지고기가 최고, 신토불이 신토불이하면서 외친다고 소비자들이 비싼 우리 돼지고기를 선택해줄지가 의문이다. 자유무역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은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양돈을 해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양돈인은 아무도 없는데 그게 쉽사리 되지 않으니 고민이다.

우리의 양돈 생산성이 선진 외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이유야 하나뿐이겠는가?

씨돼지가 나쁘고, 사료가 나쁘고, 사육기술이 뒤떨어지고, 환경이 나쁘고, 병이 많고 등등 목수가 연장

나무라는 식의 책임전가를 한다고 물건너간 소가 돌아올리 없다. 해서 우리 양돈인들은 문제점의 정확한 판단 및 이의 해결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는 한 큰 곤궁에 처하게 되리라 전망된다. 양돈의 성패는 모든 두당 연간출하두수와 생산비 경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좋다는 종돈은 살살히 뒤져서 사오고 좋은 사료곡물을 들여다 만든 사료를 온갖 사양표준에 맞추어 사양한다고 하면서 출하두수가 적으냐 하는 것이다. 돼지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아니니, 이는 포유중 폐사는 물론이고 이유자돈이나 육성비육돈의 질병으로 인한 폐사가 많기 때문에 출하두수가 적은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돼지의 폐사원인이 되는 질병은 하나 둘이 아니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을 든다면 돼지 콜레라를 위시하여 오제스키병, 전염성위장염, 유행성 설사병, 흉막폐렴, PRRS 등을 들 수 있다. 이 질병들은 모두 양돈인에게는 무서운 질병임에는 틀림없다. 이 중에서도 돼지 콜레라와 오제스키병은 돼지 또는 돼지고기의 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제대상 질병이다.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양돈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이 병의 근절이 조건으로 제시되리라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할 줄로 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돼지콜레라 박멸 3단계 5개년 계획을 금년초부터 가동시키고 있으며 오제스키병 박멸사업도 착수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만약 일본이 돼지콜레라나 오제스키병을 계획대로 박멸한다면 바로 돼지콜레라나 오제스키 발생지역으로부터의 돼지나 돈육수입을 금지할 것임은 자국의 돼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밟을 수순이라고 확신된다.

우리 정부나 양돈업계가 지향하는 수출주도형(?) 양돈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과감히 제거해야만 비로서 가능해진다. 품질이 우수한 위생적인 돈육이 아니고서는 수출은 커녕 내수용으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입장이 못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제수역국의 축산물교역 규제질병대상인 돼지콜레라의 박멸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양돈인은 물론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현재 확산일로에 있는 오제스키병도 더 커지기 전에 박멸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전국으로 확산하여 양돈산업을 강타할 것이기에 서둘러야 한다. 돼지콜레라와 오제스키병 박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영국이나 덴마크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현 기술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기에 이의 박멸사업을 정부, 업계, 학계가 모두 힘을 합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는 바이다.

일본보다 우리가 한걸음 앞서 어느 특정지역, 예컨대 제주도를 돼지 콜레라, 오제스키병 청정화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전략적인 면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비교적 단시간 내에 청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 질병의 박멸사업은 예방차원의 방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양돈인들은 국가방역차원에서 국비로 충당되기를 바라겠지만 이 문제는 국비만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무언가 모순이 있다. 자조금형식의 수혜자 부담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선에서 생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거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박멸사업을 시작한다면 우리 양돈인들은 발벗고 자기 산업을 자기가 수호한다는 굳은 의지와 결의로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켜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